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개편과 방향에 대한 제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큰 폭의 국가기술혁신 체제(NIS) 개편이 있었다.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의 정책 아젠다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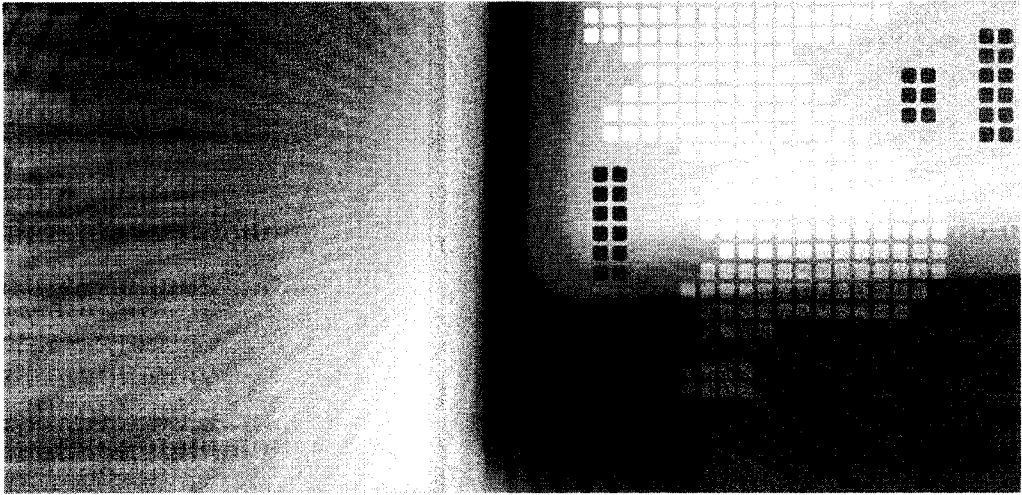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의 전문가들 또는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이 각자의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또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정책지』는 각계의 정책전문가들 또는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이 과거의 많은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는 있는 담론의 장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요한 체제 개편의 시기에 즈음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보다 나은 방향 또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된 정책전문가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과학기술정책지』의 기획의 의미는 크다.

정책초점의 기획은 다시 총론(3개 원고), 기

초연구와 출연연정책 영역(4개 원고), 산업기술 정책영역(2개 원고)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혁신사업과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각각 한 개의 원고를 수록한다.

먼저 총론의 관점에서 손병호/강현규의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577 전략 -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최근 완성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정부의 공식기조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이장재의 「최근 NIS 재편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제 : 총론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부기조의 흐름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더불어 저자가 강조하는 정책 의제를 서술한다. 김석현의 「한국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전환, 해석, 그리고 방향」 역시 저자의 혁신체제개편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그 방향성에 대해 제안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정책 영역은 대학 그리고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의 과학기술정책으로서 이에 대한 4개의 원고는 다음과 같다. 송재준의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담론들과 균형



의 모색」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학 그리고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제들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김민수의 「현장에서 바라본 출연연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현장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저자가 생생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제시한다. 고영주의 「공공기술상용화시스템구축을 위한 제언」은 출연연에서 기술사업화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자가 현장정책단위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김왕동의 「출연(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은 그동안의 정책초점이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탈추격을 넘어선 창의적 기술혁신에서는 연구문화의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김갑수의 「산업기술정책 5대 아젠다」산업기술정책을 중견기업육성 등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거나 간과되는 정책아젠다 5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장효성의 「산업기술정책의 공공성 문제와 정부 역할: 산업기술사업을 중심으로」는

산업기술연구개발지원정책의 그 본원적 임무인 시장실패의 대응에 보다 천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밖의 글들로, 이민형의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역혁신 자율책임운영시스템 중심으로」는 기존의 지역혁신사업이 중앙정부주도의 성격이 강했음을 지적하고 지역이 보다 자율적인 거버넌스구조에 입각해서 지역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성지은의 「핀란드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은 한국의 최근 지경부-교과부의 2원적인 부처체제의 구축에 이은 정책컨텐츠 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보다 일찍 행정체제개편을 실행한 핀란드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